

# “외부감사인 빅4로 제한”... 중소기업회계법인 “독점 심화” 반발

금융위원회, ‘감사인 지정제’ 개편  
상장사 자산, 5조 → 2조로 확대  
중소회계법인협, 개정안 유예 요청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이 ‘빅4(삼일·삼성·한영·안진)’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이 나왔다. 중소기업회계법인은 빅4 독과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빅4만 가능...  
“감사품질 저하 막기 위해”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내년부터 빅4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맡는 상장사의 자산을 기존 5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제 개선안은 감사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코스피200에 포

〈2021년 지정대상 기업(1969사)의 군(群)분류 현황 및 개선안〉

군분류(현행)	기업수	군분류(개선안)	기업수
가군(5조원이상)	62	가군(2조원이상)	102
나군(1조원~5조원)	99	나군(5천억원~2조원)	189
다군(4천억원~1조원)	196	다군(1천억원~5천억원)	744
라군(1천억원~4천억원)	678	라군(1천억원미만)	934
마군(1천억원미만)	934	합계	1969
합계	1969		

함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 해외 거래 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한데, 로컬 회계법인이 지정되면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인지 지정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군에 포함된다. 기존 나·다군은 통합해 4개 군으로 조정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회계법인(나·라

군)에 지정 감사가 쏠려 감사역량을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피해 중소기업회계법인으로 지정이 몰리는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회계법인에 일감이 몰렸다는 것이다.

중소회계법인에 등록된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기준 감사인 지정 비중은 5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회계 부정 위험이 큰 누적적자, 관리종목, 감리 조

치 등 지정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회계법인 반발...“빅4 중심 회귀할 것”

빅4를 제외한 회계법인들은 빅4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4일 중소기업회계법인협의회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군분류체계의 기본방침에는 동의하나 감사인 군별 요건 충족을 위한 현실적 기한이 촉박함에도 2022년 지정부터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회계법인 군 쏠림현상은 ‘나’군에 대한 쏠림 현상이므로 ‘가·나·다’군 간에 합리적으로 지정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에 이어 중견회계법인협의회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가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

해 대형 회계법인의 대안이 되는 품질 위주의 중견회계법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정 감사를 한다면 중견회계법인의 실질적 감사역량 및 품질 향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성장 사다리를 끊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중견 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금 빅4 중심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며 “빅4 회계법인은 일감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불필요해지며, 이는 역설적으로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회계기준위원장, 빅4 및 중소형 회계법인 대표이사 10명 등이 참석해 최근 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회계법인은 이날 감사인 지정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시장 변동성 극심... 안전지대 ‘배당투자’ 주목

증권사, 배당주·배당 관련 펀드 추천  
연 배당수익률 5% 이상 종목 31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방어적 투자 대안으로 배당주 및 배당 관련 펀드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체들은 배당주에 투자하고 연기금처럼 월정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덱스펀드 및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배당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락장에 가격 방어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세 곳 이상이 예상치를 제시한 주요 기업 중 올해 연간 배당수익률이 5%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31개로 집계됐다. 이 중 BNK금융지주(9.43%), DGB금융지주(9.34%), JB금융지주(9.24%), 우리금융지주(9.03%), IBK기업은행(8.54%), 하나금융지주(8.49%) 등 금융주는 9%에 근접한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3분기 실적 시즌에 추가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보수적이면서 안정적인 초과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고배당 저변동성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배당수익률이 높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낮은 종목은 KT, KT&G, SK텔레콤, 삼성카드, 포스코홀딩스이고, 고배당 실

적주는 현대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라고 말했다.

최병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6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는 하락 폭을 일부 회복했으나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긴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증시는 이에 대한 불안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 성격을 띠는 고배당주는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배당귀족펀드 투자를 추천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30일 배당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인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주식) 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펀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미국배당귀족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1.12포인트(0.86%) 상승한 2472.05에 마감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닥은 10.02포인트(1.26%) 오른 807.04, 원·달러 환율은 9.10원 내린 1337.60원에 마감했다. /뉴스IS

덱스 펀드로 최근 3개월 성과 -4.7%, 1년 성과 -1.6%를 기록 중이며 벤치마크 대비 각각 +0.8%, +8.1%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도 최근 배당 관련 펀드를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0일 KB자산운용은 KB미국ESG배당귀족펀드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배당주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접목해 장기적으로 꾸준한 배

당이 기대되는 미국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깃인컴펀드(TIF)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글로벌밸티에셋TIF액티브 ETF’를 선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TIF는 은퇴 후 노후 자산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자와 배당소득 같은 안정적인 인컴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다.

/원관희 기자 wkh@

## 증권사, 채권 판매액 확대에 리테일 강화

KB증권 채권 판매액, 1년 새 64% 증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판매액 증대에 힘 입어 라인업 강화에 나서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올 들어 8월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리테일 채권 판매액이 10조 원이 돌파했다.

KB증권 채권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조1000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64% 가량 증가한 셈이다. 회사채 금리가 연 4%를 넘어서면서 개인 고

객과 일반법인의 채권 매수가 몰려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고 KB증권 측은 설명했다. 주요 상품 별로는 기준금리 만기 1년 이하 기업어음(CP), 전기단기사채의 판매액이 8조원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또한 KB증권은 이날부터 2년 만기 월이자 지급식 하나은행 채권을 500억 원 규모로 판매에 나섰다. 다음달 5일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월 5일에 이자를 받으며, 금리는 연 4% 전후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달 기준 리테일 채권 판매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10조원을 넘겼다. 지난 7월부터 판매한 카드채, 캐피탈채 등 금융채 중

심 원화채권 판매금액은 약 2달만에 6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채권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저금리 속 유동성 장세가 끝난 뒤 금리인상기가 이어지면서 채권에 투자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0일까지 개인투자자가 장외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11조155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지난해 1년간 순매수 금액이 4조5675억 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세 달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두 배가 넘는 규모를 사들인 셈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이러한 추세에 따라 채권 상품 라인업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월 지급식 채권 매각뿐 아니라 다음달부터는 우량 등급 장기채 공급에 나섰다. /이영석 기자 ysl@

## 집 안 산다... 7월 미분양 주택 12% 증가

지방 전월대비 14.1% 늘어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3만1284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2만7910가구 대비 12.1%(3374가구) 증가한 것이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2만7180가구, 5월 2만7375가구, 6월 2만7910가구, 7월 3만1284가구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529가구로 전월 대비 1.6% 증가했고, 지방은 2만6755가

구로 전월대비 14.1%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미분양 물량이 418가구에서 544가구로 30.1% 증가했고 경기 역시 2.2% 증가했다. 서울 미분양 물량은 719가구에서 592가구로 17.7%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고층대형 미분양이 2740가구로 전월(2024가구) 대비 35.4% 급증했고, 85㎡ 이하는 2만8544가구로 전월 대비 10.3% 늘었다.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에 비해 46.0% 급감했다. /김대환 기자 kdh@